



떠나요 '오토캠핑'



휴일을 맞아 전북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양촌으로 오토캠핑에 나선 조현호, 노경원씨 가족의 모습. 석쇠에 오징어를 구워먹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나평주기자 mjna@kwangju.co.kr

“자동차가 우리집 별장”

주 5일제와 가족 중심 문화가 결합하면서 자동차에 몸을 싣고 온 가족이 자연 속으로 떠나는 '오토캠핑' (auto camping·자동차 야영)이 울려 퍼지는 새로운 휴가 추세(trend)로 뜨고 있다. 광복절까지 이어지는 징검다리 연휴 첫날인 지난 13일 밤 9시 전북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양촌. 100여 대의 자동차와 텐트가 가득한 자동차야영장 한 쪽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심상치 않는(?) 대화가 끊어질 줄 모르고 이어진다. "컴퓨터는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누나 말 좀 잘 들어라."

◇오토캠핑(auto camping)='오토 모빌'(auto mobile)과 '캠핑'(camping)의 합성어로, 자동차에 텐트와 취사도구를 싣고 산과 바다를 찾아 살림차리고 놀다 가는 아웃 도어 레저를 말한다. 오토 캠핑장은 ▲텐트장 주변으로 차량 출입이 가능해야 하며 ▲가까운 곳에 식수대·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주5일시대 가족레저 인기
지리산·내장산 등 30곳서
전국 마니아 2만여명 즐겨

입장료(1만원 안팎) 등 10만원도 안 든다고 했다. 부인 손승희(42)씨는 "일을 나눠 하다 보니 아이들이 어른스러워지고, 가족간의 끊겼던 대화가 이어져 가장 좋다"고 말했다. 함께 온 노경원(40·교직원)·정혜화(37·광주시 광산구 신가동)씨 가족은 뒤늦게 '오토 캠핑'에 빠진 경우. 축구를 좋아하는 노씨는 지난 10년 동안 주말 조기 축구 멤버로 뛰었다. 오전엔 축구, 오후엔 낮잠으로 슬관화된 10년이 이어지는 동안 가족들의 불만도 그만큼 늘었다. '안 되겠다' 싶어 지난 2004년 겨울 캠핑에 다녀왔는데, 그 뒤로는 '마니아'가 됐다. 딸 다슬(12·풍영초 5년)은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봤던 것을 얘기해주면 친구들과 쉽게 친해진다"고 말했다. 이들 가족과 같은 '오토 캠핑족'은 전국적으로 2만여명. '오토 캠핑'(cafe.daum.net/autocamping) 등 인터넷 동호회 6곳을 기반으로 내장산 백양사지구, 덕유산 무주 자동차야영장, 지리산 달골 야영장, 설악산 C지구 야영장 등 전국 30여 곳을 이용하고 있다. 이들은 연중 몇 차례 전국대회도 열어 아웃도어(outdoor) 요리경연대회, 고무동력기 날리기 대회, 장비전시회 등도 한다. 아웃도어 장비 판매업체 '무드레저' 강우진 대표는 "1천명이 넘는 야영객을 수용할 수 있는 전문 오토캠핑장은 전국을 통틀어 손에 꼽을 정도로 아직은 부족한 편"이라면서 "광주·전남에 묻혀있는 야산을 활용하면 캠핑족 뿐만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승배기자 ls54@kwangju.co.kr

광주고법 '민사小법정' 첫 선

법관-소송당사자 눈높이 맞추며 재판

구술심리 활성화 기대
법관이 소송 당사자와 눈높이를 같이하면서 최대한 가까운 거리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민사 소(小)법정'이 17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첫 선을 보였다. '민사 소법정'은 기존 법정(30여평)보다 크기가 절반인 15평 규모로, 판사의 법대도 일반 법대의 높이보다 30cm가량 낮아지고 소송 당사자 간의 거리가 좁아진 것이 큰 특징이다. 또 법대와 증인석, 원·피고석이 서로 마주보는 오각형 형태로 설치됐으며, 기존 법정과 달리 창문이 있어 밝은 분위기에서 재판하도록 했다. 판사와 소송 당사자가 서로 마주보며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어 억울한 사연들을 보다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여기에 1개 재판부가 1개의 법정을 확보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법정 개정이 가능하고 조정이나 변론준비 기일, 변론기일도 같은 장소에서 즉시 이뤄질 수 있어 신속한 재판진행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민사 소법정'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설치돼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에서는 광주고법이 처음이다. 문방진 고법 공보관은 "법대가 낮아지고 분위기가 밝아져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주고법 민사 소법정의 첫 공판은 오는 22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고등법원은 17일 오후 법원 3층 305호실에 '민사 소법정' 2개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위정량기자 jrwi@kwangju.co.kr

남해안 적조 확산

정보발령 고흥 지죽도까지 확대

전남의 남해안에 울 들어 첫 '적조 경보'가 발령되는 등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어 비상이다. 국립수산과학원은 17일 경남 남해군 일대에 발령된 '적조경보'를 고흥군 도화면 지죽도 종단까지 확대했다. 또 완도군 약산면 특암리 종단~고흥군 도화면 지죽도 종단에는 '적조주의보'를 계속 발령 중이다. 여수시 금오도 개도일원은 현재 유해성 적조생물인 '코클로디니움'(Cochlodinium)의 농도가 1m/당 최고 7천500개체에 달하고 있으며 ▲고흥군 나로도 동일면 일원은 50~2천800개체 ▲장흥군 관산읍~회진면 40~800개체 ▲완도군 금당면~약산면 16~182개체의 농도를 각각 보이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전남 남해안의 경우 적조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냉수대(冷水帶)가 거의 소멸됐고, 수온이 적조 미생물이 번식하기 좋은 25~28도를 유지하고 있어, '코클로디니움'의 농도가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Weather forecast for August 18th, including temperature ranges for various regions and a map of Korea.

Weather forecast for typhoon 'Wukong', including expected rainfall of 10-40mm and impact on the southern coast.

Information regarding the 'Jeonnam Road Safety Week' (전남도로안전주간), including dates and participating organizations.

Local business directory for Kwangju, listing various services like tax, legal, and insurance.

Advertisement for 'Hong Skyeis.kr' featuring a car and promoting a 'Renewal Car Show'.

Large advertisement for Sony Alpha cameras, featuring a professional camera and promotional text.